

변화 바람 일으키는 '광산문화회관'

전문가가 만들어낸 작은 문화 기적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는 매달 한차례씩 광산문화회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광산 해피콘서트 시리즈'를 진행한다.

연극단체인 아트컴퍼니원(대표 원광연)은 광산 출신 시인 박용철을 소재로 한 시무용극 '용이'를 역시 같은 공연장에서 선보였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광산문화회관의 변화가 놀랍다. 이곳은 몇년 전까지만해도 유치원의 학예회나 각종 단체의 행사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광산문화회관 전경

지역 지자체 첫 문화기획전문위원 채용... 10주년 공연 다채

예산 1000만원 불과 정부사업에 눈길... 3개 상주단체 활동

어느 지역 문화회관보다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다.

최근 광산구청에서 날아온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팸플릿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감만족 콘서트, 폭죽스 컴퍼니의 무용극 '짜짜짜' 등이 공연됐고 극단 까치둥의 세미 뮤지컬 '마고호의 복수' (23일 오후 7시30분), 태이움직임 연구소의 커뮤니티 댄스 '우리 모두 다같이' (29일 오후 5시30분)와 에코댄스 '초록이의 여행' (29일 오후 7시30분), 광산청소년밴드 페스티벌 '달달라 광산!' (31일 오후 6시30분)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1992년 설립된 광산문화회관은 55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다. 직원 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대부분 공연장 개보수에 사용되고 있다.

광산문화회관의 변화는 돈이나, 인프라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냈다.

광산구청은 지난해 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문화기획 전문위원을 뽑았다.

광산구청은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 사업 프리젠테이션에도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참여해 1500만원의 예산을 따

졌다는 판단이 서 과감하게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전주시립극단 단무장, 전주전통문화관 공연과장, 전주 세계소리축제 행사부장 등을 맡았고, 중앙대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한 전문가 이현숙(45)씨가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문화회관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씨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 확보된 기획 예산 역시 1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에 눈을 돌렸다.

현재 광산문화회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 3개 단체는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산을 대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선정팀들이다.

이씨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는 단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한 공연장에서 3개의 상주단체가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광주 지역 대부분의 공연장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광산구청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광산구청은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 사업 프리젠테이션에도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참여해 1500만원의 예산을 따



10주년 기념공연 작 '비행선 마고호의 복수'

20일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 공연장의 프로그램과 음향, 무대 시스템 등을 전문가들이 체크해주는 '문화회관 컨설팅 사업'에도 지원, 최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씨는 상주단체들의 활동상과 지원책 등을 담은 자료집도 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이현숙 전문위원은 "광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문화컨설팅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문화회관의 사업비를 늘려 다양한 기획사업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한자리에

26일까지 우제길미술관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독특한 표현 양식을 일궈내며 국내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대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26일까지 동구 우림동 우제길미술관에서 '광주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을 연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으로, 올해 18회 수상자 공모를 앞두고 있다.

두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필용(2회), 고 김동하·주홍(3회), 문인상·박동신(4회), 이준석(5회), 박종석(6회), 주재현(7회), 이이남(8회), 조상호(9회), 나영규(10회), 김숙빈(11회), 김도기(12회), 신창운(13회), 임병중(14회), 박현수(15회), 김진화(16회), 진시영(17회) 등 역대수상자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지역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들의 뚜렷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리로, 대표작을 전시하는 만큼 행거불만하다. 문의 062-224-6601.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송필용 작 '생명의 순환 수류회개'

전국 6000여명 도시에술가 광주 집결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25일 DJ센터서 개막

전국 건축사들이 광주에 모인다. 광주시건축사회는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전국 16개 시·도 건축사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지방에서는 두번째 열리는 행사로, '시(時)+문(文)=건축(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를 주제로 기념식, 건축비전 선포식,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전남 대표 건축물인 소재원·식영전·환벽당 등 가시문화권 일대

와 의재미술관·우제길 미술관·전통문화관 등 무등산권을 둘러본다.

또 양림동 선교사택 등 근대문화유산, 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과 광주폴리설치 장소 등도 찾아볼 예정이다. 이 기간 건축사들은 또 심포지엄을 통해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하고, 건축사들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심상봉 광주시건축사회장은 "건축이 미래를 내다보고 만드는 종합예술인데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광주의 건축 문화 등을 적극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12개 문화재단

지역 문화발전 공동행보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예술재단을 비롯, 전국 12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공동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 문화재단은 오는 26일 부산 해운대 에이펙(APEC) 하우스 누리마루에서 '제1회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지역 문화발전권에 힘을 모은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주기적 제안 ▲국가 문화예산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지역문화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개발 ▲문화제도를 둘러싼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확보에 따른 공동 규약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 문화발전이 국가 문화발전의 핵심이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지역 문화의 필요성과 방향성', '지역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체계', '지역 문화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다채로운 맛과 향 홍차에 빠지다

김영애씨 '홍차, 그 화려한 유혹' 발간

김영애 (세한국차문화협회 순천지회장이) 최근 홍차를 소재로 한 '홍차, 그 화려한 유혹'을 발간했다.

지난해 '맛과 멋을 디자인한 차음식의 세계'에 이은 두번째 책으로, 11개 주제로 나눠 홍차의 유래를 비롯해 세계 홍차 생산 현황, 중국 등 7개국의 홍차 문화, 종류별 특징을 풀어내면서 사진을 곁들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저자가 오랜 연구를 통해 채득한 블렌딩 방

법을 소개하는 한편, 홍차에 어울리는 음식과 분위기에 맞는 테이블 웨어, 찻잔 세트 등 알아두어야 할 상식도 덧붙였다. 홍차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30여년 동안 홍차에 빠진 저자의 홍차 사랑도 엿볼 수 있다.

〈차의세계 2만52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표 편집장회의'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23일 오후 3시 미술관 내 세미나실에서 '2012 아시아 편집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 아시아 미술의 핫 이슈'라는 주제로, 나고야 사토무 미술평론가, 호경운 아트 인 컬처 편집장, 스가와라 노리오 요미우리 신문사 편집위원, 윤진섭 호남대학교수, 한창운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 2과장 등이 참여해 '아시아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 '아시아 미술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062-613-7151.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30th Anniversary featuring a 30% OFF SALE and international flags.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 Arirang House featuring a 30-year anniversary celebration and dining options.